

특수교사의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

홍 선 우** · 강 경 숙*** · 이 애 란****

대전대학교 · 원광대학교 · 원광보건대학교

《 요 약 》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특수교사들에게 안전에 대한 지식과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수행능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수교육 기관에서 장애학생으로 하여금 우발적인 사고 발생 후 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해서 손상을 최소화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들이 사고유형에 따른 응급처치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장애아동을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이 경험하는 응급상황을 조사하고,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 소재한 특수학교(급) 특수학급 교사 303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수행능력 10개 문항 및 관련 지식 10문항의 총 20개 문항 설문지를 구성하여 응답을 수집하였고, SAS 9.1.3로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은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와 응급상황 경험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고, 그밖에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근무지, 근무경력 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응급처치에 대한 수행능력은 성별, 근무지, 근무경력,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관심정도, 응급상황 경험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교사들이 근무 중 경험한 응급상황을 파악한 결과, 가장 많은 대상자가 경련을 경험했으며, 구토/실사, 고열, 출혈, 골절/탈구 순으로 많았으며, 그 외에 질식, 화상, 추락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사를 위한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하고, 사고 유형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을 현실화하여 교사들에게 제공할 것과 특수교사의 응급상황에 따른 처치방법에 대한 실태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특수교사, 장애학생 안전교육, 응급처치, 지식, 수행능력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대전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제 1저자, 대전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 교신저자,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grace86@wku.ac.kr)

**** 공동저자,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응급처치(first aid)’란 상해를 입거나 갑작스럽게 아픈 사람에게 취하는 즉각적인 조치이다. 이는 보다 나은 병원 치료를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 뿐 아니라 적절한 조치로 회복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응급상황 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연락하는 것으로부터 부상이나 질병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이다(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2013). 응급처치의 주요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하며 질병이나 손상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통을 경감시키며 환자를 가치 있는 한 인간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다(김윤정, 2011). 응급상황과 응급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한다. 이러한 응급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대처방법을 알아야 사고로 인한 이차적 손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박진성, 2013).

특히 아동은 신체균형 유지능력이나 운동기능이 미숙한 상태로 인해 주변의 위험한 상황에 대한 지식이나 결과를 예측하는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사고에 노출되기 쉬운데, 2014년 기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14세 이하 아동 인구 7,337,000명 중 연간 215,000명의 아동이 안전사고로 사망하며, 사고 유형은 교통사고 80,000명, 익사 36,000명, 추락 31,000명, 화재 5,000명, 중독 2,000명, 기타 61,000명인 것으로 보고되었다(통계청, 2015).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응급상황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상의 통계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에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흡인, 질식, 화상, 익사, 낙상, 중독, 자동차 사고 등으로써 적절한 응급조치를 통해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방경숙, 2005a).

또한 유아에게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지식, 실천과 응급처치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방경숙, 2005b). 사고가 발생한 후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아동의 연령에 맞는 응급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과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영유아의 건강 문제에 대한 지식과 관리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한경자, 김지수, 최미영, 2007), 보육교사들은 응급처치와 사고 예방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며(김지수, 2003), 특히 심폐소생술, 중독, 끼임, 협착, 고열, 구토에 관한 응급처치를 잘 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하였다(이선미, 조민순, 2010). 이러한 차원에서 보육교사의 일반연수와 직무연수 과정에서 건강생활 영역 중 안전이나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을 한두 시간 정도 다루고 있으며, 보육교사(3급) 양성교육과정에서는 최근 자료를 보면, 건강·영양 및 안전 영역에서 아동간호학(2학점),

아동안전관리(2학점), 아동영양학(2학점) 등 총 3과목 중에서 2과목(4학점)이상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보육교사교육원, 2016), 유아의 안전과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는 발달장애아동의 인지능력은 일반아동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발달장애 특수학교의 실정은 특수학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신연령의 아동이 많은 관계로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욱 높은 상태이므로(최성규, 2005), 특수건강문제를 가진 아동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한경자, 김지수, 최미영, 2007). 따라서 장애학생의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들은 장애학생의 안전지도와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추어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국 대학의 특수교육과 교육과정 중 응급처치 관련한 내용으로 학점을 이수하게 하는 학교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응급처치 관련 내용을 특수교육 과목인 중도중복장애, 지적장애아교육 등의 과목에서 일부 다룰 수는 있겠으나, 장애학생의 안전교육과 응급처치에 대한 특정 과목은 임용고시 과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현재 대학에서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라는 주제로 학기별 한 번씩 총 2회의 강의를 이수해야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력을 살펴보면, 장애학생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교(급) 학생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장애학생 등·하교 시 보호자와 학생 안전 사항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학교 주변 통학로에 장애학생 보호 인력을 배치 운영하도록 하고, 특수학교(급) 조리 및 가사실습 시 안전사고 예방 지침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장애학생 안전교육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교육부, 2015b). ‘2016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교육부, 2016)’에서는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과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교육, 다시 말해 현장 실태를 고려한 상황별(교통, 화재, 재난 등)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장애유형별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상황별 매뉴얼을 제검토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특수학교(급)의 교직원 안전관련 연수 및 안전관련 예방교육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특수학교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응급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실시해야 할 교사교육에 대한 내용은 교육부 연차보고서와 운영계획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일어나는 장애아동에 대한 응급사고 또는 응급처치와 관련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논문검색엔진에서 ‘특수교육 응급

처치’, ‘특수교사 응급처치’, ‘장애학생 응급처치’라는 키워드를 통해 검색된 논문은 겨우 서너 편에 불과하고(정은진, 2003; 정인구, 2009; 조영희, 2010), ‘장애 응급처치’로 검색된 논문으로는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실태,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지식과 수행 정도에 관한 연구가 있다(이효철, 장용수, 2010; 이효철, 장용수, 유병국, 2010).

‘특수교육 안전지도’ 키워드를 통해 검색된 논문으로는 특수교육보조원¹⁾이 안전지도와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특수교육보조원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강경숙, 김용욱, 2004; 손영화, 권요한, 2010), 교직원문화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에서 학생 안전사고, 안전지도를 다룬 연구(박재범, 2011; 박재범, 양정호, 2009), 재택·순회교육 혹은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에서 안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박은혜, 이영선, 이명희, 2010; 이진영, 한경근, 2007). 이 중 정인구(2009)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구체적인 안전교육 내용과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교육 지도 및 교사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초등학교 특수학급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교사와 유아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에 대한 연구는 다소 이루어졌으나, 특수학교에서의 안전사고 또는 응급처치와 관련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모두 제한적이며, 특수교육 차원에서의 연구는 매우 미진하다(정은진, 2003; 정인구, 2009; 최성규, 2005). 물론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등 교육기관에 보건교사가 전원 배치가 되어 있지만, 특수교사의 경우 장애학생의 특수성으로 인해 혹은 현장학습 등 보건교사 부재시, 응급처치 관련 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추어야 긴급하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장애아동을 교육하고 있는 특수교사들의 응급처치에 대한 경험 지식, 및 수행능력을 파악하고, 특수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특수교사의 연수 혹은 교육 과정에 응급처치 교육방법의 방향을 제시하고, 특수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특수교육관련서비스에 ‘보조인력지원’이란 용어로 제시되어 있으나, 관련 연구와 교육부 발행 정책 문서(2016 특수교육 운영계획 등)에 ‘특수교육보조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다만 특정 시도에서는 ‘특수교육실무원’, ‘특수교육지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교사의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수준과 수행능력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사의 응급처치에 대한 경험정도, 지식 및 응급처치 수행능력은 어떠한지 파악한다.

둘째, 특수교사의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장애아동을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이 경험하는 응급상황의 실태를 조사하고,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과 도구,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은 전국에 소재한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교사 303명이다. 대상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절차, 연구 자료의 비밀유지에 대한 설명을 읽고, 연구 참여에 동의 여부를 체크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응답은 하였으나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총 323명이 응답하였으나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거나(6명) 특수교사 경력이 5개월 이하인 자(7명) 및 불성실하게 작성된 자료 7부 등 총 20부를 제외하고 최종 303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ANOVA 분석 시 G*power 3.1.5 를 이용하여 최소 표본수를 계산한 결과 유의수준 0.05, 중간효과크기 0.25, 검정력 0.9 기준으로 했을 때 206명으로 산출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303명의 자료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78명(25.7%), 여성 225명(74.3%)이었고, 평균 연령은 39.6세로서 최저 23세에서 최고 61세이었으며, 35세 미만이 105명(34.7%), 35~45세 106명(35.0%), 46세 이상이 92명(30.4%)이었다. 대상자의 34.8%는 미혼, 62.9%는 기혼이고 이혼/사별/기타는 2.3%이었으며, 교육수준은 대졸이 195명(64.4%)이고 대학원 이상이 108명(35.6%)이었다. 대상자의

3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7권 4호)

76.2% (231명)는 특수학교, 23.8%(72명)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들이었다.

특수교사들이 교육하고 있는 대상 학생은 초등학생 101명(33.3%), 중학생 102명(33.7%), 고등학생 86명(28.4%), 전공과 학생 14명(4.6%)이었다. 평균 근무경력은 13년이고 최저 1년에서 최고 35년이었으며, 10년 이하가 151명 (49.8%)으로 가장 많고, 11~20년 이하 72명(23.8.0%), 21년 이상 80명(26.4%) 이었다. 대상자들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관심은 10점 만점 기준시 평균 8.33(±1.66)점이고 관심이 높은 집단(9~10점)에 143명(47.2%), 중등도(7~8점) 116명(38.3%), 낮은 집단(6점 이하)에는 단지 44명(14.5%) 이었다. 근무 중 경험한 응급상황은 평균 2.4건으로 응급상황 경험이 없거나 1회인 경우 106명(35.0%), 2~3회 정도는 130명(42.9%), 4회 이상인 경우 67명(22.1%)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N=303)

특성	범주	n	%	M±SD (최소-최대)
성	남성	78	25.7	
	여성	225	74.3	
연령(연)	35 미만	105	34.7	39.57±9.38 (23~61)
	35~45	106	35.0	
	46 이상	92	30.4	
결혼상태	미혼	105	34.8	
	기혼	190	62.9	
	이혼/사별/기타	7	2.3	
교육수준	대졸	195	64.4	
	대학원 이상	108	35.6	
근무지	특수학급	72	23.8	
	특수학교	231	76.2	
교육대상	초등학생	101	33.3	
	중학생	102	33.7	
	고등학생	86	28.4	
	전공과 학생	14	4.6	
경력(연)	10년 이하	151	49.8	13.03±9.52 (1~35)
	20년 이하	72	23.8	
	21년 이상	80	26.4	
응급처치 교육 관심	하(≤6)	44	14.5	8.33±1.66 (4~10)
	중(7-8) 상(9-10)	116 143	38.3 47.2	
응급상황 경험 횟수	하(0-1)	106	35.0	2.44±1.66
	중(2-3)	130	42.9	
	상(≥4)	67	22.1	

2. 연구 도구

국내외적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연구는 “응급처치를 할 줄 아십니까?”수준의 단 문항 질문에 “예”, “아니오”또는 “모른다”의 응답으로 수행능력 및 지식수준을 체크하는 정도이다. 특히 일반인은 물론 특수교사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한 지식과 상황별 응급처치 수행능력을 다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는 도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진은 철저한 문헌 고찰과 전문가의 검증 및 파일럿 스터디를 거쳐 특수교사들의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을 파악하였다(김미선, 박미화, 이효숙, 2006; 김윤정, 2011; 김지수, 2003; 박미희, 2011; 서연주, 2013; 석희숙, 2006; 송지호, 조결자, 박은숙, 박인숙, 박호란, 신희선 외, 2012). 도구 개발은 다음의 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국내외에서 특수교사들의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 관련 문헌을 찾아 도구의 내용을 확인하였지만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는 도구는 찾을 수 없었다. 둘째, 응급처치와 관련된 문헌을 정리하여 현장에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10가지 영역과 관련된 지식으로 나누고 대상자들이 최소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추출한 결과, 질식, 실신, 경련, 추락, 화상, 고열, 출혈, 뼈·관절 손상, 구토/설사, 기타의 10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추출된 내용을 항목으로 나열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넷째, 특수교사, 간호학과 교수, 특수교육학과 교수, 응급구조학과 교수 각 1인에게 설문지 초안을 검증받고,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고 문항을 정리하여 응급처치 수행능력 10개 문항 및 관련 지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내용 타당도를 확보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특수교사 20명을 대상으로 pilot study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파일럿 스터디 결과에 의거하여 응급처치 수행능력 10개 문항 및 관련 지식 10개 문항의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고 문장을 정련하고 확정하였다.

설문지 항목 중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은 서로 다른 응급상황에 대한 10개의 질문에 응답을 ‘아니오’, ‘예’, ‘모른다’로 구성한 후, 오답과 모른다는 0점, 정답은 1점으로 처리하였다. 점수 범위는 상황별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 0~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응급처치 수행능력은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한 수행능력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전혀 할 수 없다(1점) ~ 능숙하게 할 수 있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한 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지식 측정시 문항 내용과 정답 여부는 다음 <표 2>와 같고,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표 2>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 측정 도구의 문항 범주와 내용

범주	문항	답
질식	장애학생에게 음식물로 인한 질식이 발생하면 몸을 앞으로 굽혀서 등을 두드려준다.	정답
실신	장애학생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실신) 두드려 깨운다.	정답
경련	장애학생에게 경련이 발생했을 때 팔 다리를 주물러 준다.	오답
추락	장애학생이 추락해서 다쳤을 때 엎어서 편평한 곳으로 옮긴다.	오답
화상	장애학생에게 화상이 발생한 부위를 찬물로 씻어준다.	정답
고열	장애학생에게 고열이 발생했을 때 냉찜질을 해준다.	오답
출혈	장애학생에게 출혈이 발생했을 때 상처부위를 압박해준다.	정답
골절	장애학생에게 골절이 발생했을 때 골절 부위를 움직여 본다.	오답
구토/설사	장애학생에게 구토/설사가 발생했을 때 음식을 먹이지 않고 보리차를 먹인다.	정답
중독	장애학생에게 중독(농약, 휘발유, 약물 등)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토하게 한다.	오답

3.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15년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루어졌고, 온라인으로 ‘네이버 오피스 폼’을 이용한 설문지를 ‘눈덩이 방식(snow ball)’을 이용하여 특수교사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카톡을 통해 배포하고 수집하였다. 특수학교의 경우, 자료수집이 계획된 교장이나 교감,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해당학교 교사의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일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학급 교사의 경우, 학교당 2~3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눈덩이 방식(snow ball)’을 이용하였다. 대상자들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연구절차, 연구 자료의 비밀유지, 응답 중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연구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평균 약 15~2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9.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응급처치 지식수준, 근무 중 경험한 응급상황,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처치 수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지식과 수행능력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응급상황 경험,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수준 및 수행능력

특수교사들이 근무 중 경험한 응급상황 실태를 조사하였을 때 대상자의 72.3%가 경련을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구토/설사 46.9%, 고열 27.7%, 출혈 27.7%, 골절/탈구 21.1% 순으로 많았으며 그 외에 질식 13.9%, 화상 11.2%, 추락 6.6% 순이었다.

특수교사들의 상황별 응급처치 지식에서 전체적인 정답율은 66.7%이었으며 37.3~92.4%의 분포를 보였다. 그 중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골절이 발생했을 때 골절 부위를 움직여본다(오답).” 92.4%이고, 그 다음으로 “추락해서 다쳤을 때 엎어서 편평한 곳으로 옮긴다(오답).” 88.1%이며, 그 외 출혈, 실신, 경련에 대한 응급처치 정답률이 각 75.2%, 74.3%, 72.6% 순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장애학생에게 중독(농약, 휘발유, 약물 등)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토하게 한다(오답).”는 응답이 36.6%, “장애학생에게 고열이 발생했을 때 냉찜질을 해준다(오답).”는 37.3%로 특히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표 2>, <표 3> 참조).

각 항목별로 응급처치 경험률, 지식 및 수행능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특수교사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응급상황은 ‘경련’이었고, “장애학생에게 경련이 발생했을 때 팔 다리를 주물러준다(오답).”는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72.6%, 응급처치 수행능력은 3.73 ± 0.66 이었다. 두 번째로 응급상황 경험률이 높은 항목은 ‘구토/설사’로써 “장애학생에게 구토/설사가 발생했을 때 음식을 먹이지 않고 보리차를 먹인다(정답).”는 질문에 대하여 정답으로 표시한 교사가 59.4%이었으며, 응급처치 수행능력은 3.51 ± 0.65 이었다.

‘고열’은 특수교사의 27.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장애학생에게 고열이 발생했을 때 냉찜질을 해 준다(오답).”라는 질문에 대하여 오답이라고 정확하게 응답한 교사는 37.3%, 응급처치 수행능력은 3.62 ± 0.63 이었다. ‘출혈’은 특수교사의 27.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학생에게 출혈이 발생했을 때 상처부위를 압박해 준다(정답).”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답이라고 정확하게 응답한 교사는 75.2%이었고, 응급처치 수행능력은 3.54 ± 0.63 이었다.

‘중독’은 특수교사의 21.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학생에게 중독(농약, 휘발유, 약물 등)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토하게 한다(오답).”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응답한 교사는 39.6%이었고, 응급처치 수행능력은 3.38 ± 0.62 이었다. ‘골절과 탈구’는 특수교사의 21.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골절/탈구에 대한 특수교사의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은 “장애학생에게 골절이 발생했을 때 골절 부위를 움직여 본다(오답).”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률은 92.4%로써 높은 지식수준을 보였으나

3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7권 4호)

응급처치 수행능력은 2.99 ± 0.81 이었다.

‘질식’은 특수교사의 13.9%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은 “장애학생에게 음식물로 인한 질식이 발생하면 몸을 앞으로 굽혀서 등을 두드려 준다(정답).”라는 문항을 정답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60.7%이었고, 응급처치 수행능력은 3.43 ± 0.67 이었다. ‘화상’은 특수교사의 11.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은 “장애학생에게 화상이 발생한 부위를 찬물로 씻어준다(정답).”라는 문항을 정답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68.0%이었고, 응급처치 수행능력은 3.36 ± 0.74 이었다.

‘추락’은 특수교사의 7.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추락에 대한 특수교사의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은 “장애학생이 추락해서 다쳤을 때 엎어서 편평한 곳으로 옮긴다.”라는 문항을 오답이라고 정확하게 응답한 교사는 88.1%이었고, 응급처치 수행능력은 3.22 ± 0.71 이었다. ‘실신’은 특수교사의 6.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은 “장애학생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실신) 두드려 깨운다(정답).”라는 문항을 정답으로 응답한 교사는 74.3%이었고, 응급처치 수행능력은 3.32 ± 0.67 이었다.

<표 3> 응급상황 경험,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 및 수행능력 (N=303)

범주	응급상황 경험률		응급처치 지식 정답률		응급처치 수행능력
	n	%	n	%	M±SD
경련	219	72.3	220	72.6	3.73 ± 0.66
구토/설사	142	46.9	180	59.4	3.51 ± 0.65
고열	84	27.7	113	37.3	3.62 ± 0.63
출혈	84	27.7	228	75.2	3.54 ± 0.63
골절/탈구	64	21.1	280	92.4	2.99 ± 0.81
질식	42	13.9	184	60.7	3.43 ± 0.67
화상	34	11.2	206	68.0	3.36 ± 0.74
추락	22	7.3	267	88.1	3.22 ± 0.71
실신	20	6.6	225	74.3	3.32 ± 0.67
중독/기타	65	21.5	120	39.6	3.38 ± 0.62
전체		25.6		66.8	3.41 ± 0.62

응답결과를 정리하면, 특수교사들의 상황별 응급처치 수행능력을 5점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평균 3.41점으로 나타났으며, 경련에 대한 응급처치 수행능력이 평균 3.73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고열 3.62점, 출혈 3.54점 구토/설사 3.5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골절/탈구에 대한 응급처치 수행능력은 2.99점으로 낮게 나타

났다(<표 3> 참조). 가장 많이 경험한 경련에 대한 수행능력이 역시 가장 높고, 구토/설사의 경우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경험했으나 수행능력은 다른 응급상황에 비해 높지 않았다.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지식 및 수행능력 차이

응답자들의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은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와 응급상황 경험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중등도 이상(7점 이상)인 경우 관심이 낮은 집단(6점 이하)에 비해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 = 6.93, p = .001$). 또한 응급상황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경우(4회 이상) 응급상황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1회인 집단에 비해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 = 3.49, p = .032$). 그밖에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근무지, 근무경력 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응급처치에 대한 수행능력은 성별, 근무지, 근무경력,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 응급상황 경험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t = 2.80, p = .005$), 특수학교 교사인 경우 일반학교 특급학급 교사보다($t = 5.95, p = .015$), 근무경력이 21년 이상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F = 3.94, p = .021$),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집단($F = 7.94, p < .001$)이, 응급상황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경우(4회 이상), 응급상황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1회인 집단 및 2~3회 정도인 집단에 비해 응급처치에 대한 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 = 5.41, p = .005$). 그 밖에 연령, 결혼상태, 경력, 교육대상, 근무경력 등의 다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에 대한 수행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참조).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 차이 (N=303)

특성	범주	인원	응급처치 지식			응급처치 수행능력		
			평균±표준편차	t, F	유의수준 (Scheffe)	평균±표준편차	t, F	유의수준 (Scheffe)
성	남성	78	6.47±1.50	-1.33	.185	35.38±4.79	2.80	.005
	여성	225	6.74±1.52			33.66±4.67		
연령(연)	35 미만	105	6.49±1.57	0.79	.374	33.95±4.98	0.45	.501
	35-45	106	6.85±1.53			33.95±4.46		
	46 이상	92	6.67±1.42			34.42±4.85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 차이(계속) (N=303)

특성	범주	인원	응급처치 지식			응급처치 수행능력		
			평균± 표준편차	t, F	유의수준 (Scheffe)	평균± 표준편차	t, F	유의수준 (Scheffe)
결혼상태	미혼	105	6.44±1.56	3.60	.058	33.65±5.10	1.13	.288
	기혼	190	6.81±1.45			34.33±4.58		
	이혼/사별/기타	7	6.71±1.80			34.00±5.16		
교육수준	대졸	195	6.72±1.49	0.57	.451	34.03±4.98	0.09	.761
	대학원 이상	108	6.57±1.55			34.18±4.35		
근무지	특수학급	72	6.47±1.40	1.65	.199	32.94±4.18	5.95	.015
	특수학교	231	6.72±1.54			34.42±4.87		
교육대상	초등학생	101	6.90±1.47	0.60	.439	33.83±4.92	0.90	.344
	중학생	102	6.52±1.53			34.35±4.71		
	고등학생	86	6.50±1.50			33.70±4.68		
	전공과 학생	14	7.21±1.36			36.71±4.59		
경력(연)	10년 이하 ^a	151	6.57±1.56	0.38	.682	33.96±5.13	3.94	.021 (a,b<c)
	20년 이하 ^b	72	6.81±1.53			33.55±4.43		
	21년 이상 ^c	80	6.69±1.36			35.33±4.43		
응급처치 교육 관심	하(≤6) ^a	44	5.90±1.56	6.93	.001 (a<b,c)	31.88±3.94	7.94	<.001 (a<b,c)
	중(7-8) ^b	116	6.83±1.36			33.85±4.04		
	상(9-10) ^c	143	6.76±1.55			34.99±5.34		
응급상황 경험 횟수	하(0-1) ^a	106	6.38±1.56	3.49	.032 (a<c)	33.48±4.20	5.41	.005 (a,b<c)
	중(2-3) ^b	132	6.78±1.54			33.85±4.55		
	상(≥4) ^c	65	6.94±1.30			35.71±5.02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장애아동을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이 경험하는 응급상황의 실태,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 및 수행능력을 파악함으로써 연수 혹은 교육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교육 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특수교사들이 근무 중 경험하는 응급상황은 경련이 가장 많았으며, 구토/설사, 고열, 출혈, 골절/탈구, 질식, 화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희(2011)가 영아반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보육현장에서 경험하는 응급상황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설사(36.9%), 발열(36.4%), 구토(30.8%), 찰과상(28.0%) 등이라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장애학생들에게는 경련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특수교사들의 경력에 대한 응급

처치 지식과 응급처치 수행능력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응급처치에 대한 항목별 지식수준은 37.3%~92.4%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66.7%이었는데, 골절, 추락, 출혈, 실신, 경련에 대한 응급처치 정답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중독(농약, 휘발유, 약물 등), 고열 등에 대한 응급처치에 대한 정답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지식 및 수행능력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은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관심정도와 경험한 응급상황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급처치 수행능력은 성별, 근무지, 근무경력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관심정도와 경험한 응급상황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예비중등 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서연주(2013)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응급처치 지식수준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고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도 즉각적으로 병원을 찾아가거나 치료를 받으며 그로 인해 응급처치나 건강에 관한 정보를 더욱 많이 습득하게 된 것으로 인해 나온 결과라고 설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수준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고 응급처치 수행능력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76.2%가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23.8%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었는데, 특수학교 교사인 경우 일반학교 특수학급 교사보다 응급처치 수행능력이 높았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최성규(2005)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제시하면서, 특수교사가 일반교사보다 높고 초등 특수교사가 중등 특수교사보다 높다고 하였다. 특수학교에서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비해 비교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학생이 배치되고, 초등 특수교육 현장이 중등 특수교사에 비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높고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특수교사의 연령, 결혼상태, 경력, 교육대상, 근무경력 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수준이나 수행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사들의 근무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교육경력이 많거나 응급상황 경험횟수 또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심이 높은 교사들의 응급처치 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식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응급상황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수행능력이 중요하므로 지식 위주의 응급처치 교육보다는 실기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때문에 특수교사들의 응급처치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연수과정에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실시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등 학교교육 자료에서도 응급처치에 대한 실기교육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비 중등체육교사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인식조사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시간이 대체적으로 부족하고 응급처치 교육내용이 실기교육에 비해

이론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응급처치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서연주, 2013). 이에 황미영(2002)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의학적인 근거 하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지식습득을 강조하였다.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응급처치를 신속히 시행함으로써 유아의 생명을 구하고 위험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유아교사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평소에 알고 있었던 응급처치의 내용과 기술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응급처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사들에게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서이며,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는 위급상황 시 행동요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서연주, 2013). 응급처치에 대한 사전 교육과 주기적인 교육은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또한 응급처치 교육을 받더라도 어떠한 기술이든지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효과는 감소하므로 재교육이 필요하다(김운정, 2011).

이에 대학에서의 안전사고나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실태를 살펴보면, 보건계열 학과의 경우 작업치료학과는 전체 54개 학과 중 11개 학과(20.4%)만이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물리치료학과 전체 77개 학과 중 26개 학과(33.8%)만이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진성, 2013). 보육시설교사의 응급처치 교육 실태는 재학 시 과반수의 교사가 응급처치 관련 과목을 이수했으며, 재직 시에는 년 1회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교사는 과반수가 되지 않았다(석희숙, 2006). 또한 유아교사들 중 과반수 이상은 근무하기 전후에 응급처치교육을 받았는데, 주로 이론 위주의 강의였으며 2시간 이내로 매우 미흡하였다. 이때 교사가 배운 응급처치 내용은 출혈, 열상 등과 같이 흔히 일어나는 사고를 중심으로 다루어졌고, 사고시의 상태 판정, 골절, 쇼크 등과 같은 위급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은 소홀하게 다루어졌으므로 교사들은 이러한 내용을 배우기 원한다고 하였다(김미선, 박미화, 이효숙, 2006).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특수체육지도사 양성을 위한 전공교과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필수실기과목으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법에 대한 과목을 요구하는 연구 외에 특수교육학과에서 응급처치 관련 내용을 얼마나 교육하는지, 교육과정을 조사한 연구는 아직 없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응급처치 관련 내용은 교수의 재량에 의해 중도·중복 장애아교육, 지체장애아교육 등에서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이들에게 요구되는 수행능력 중 주요업무가 안전사고 예방이므로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 직무연수 과정에서 안전지도 및 응급처치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대학교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과목 신설은 어렵더라도 일부 시간을 할애하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예비 특수교사를 지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반학생에 비해 장애학생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에 대한 인식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함으로 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매우 높을 수 있으므로 (이효철, 장용수, 유병국, 2010), 장애학생에게도 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대처에 대해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특수교육에서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에 안전생활 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생활에 대한 내용에 대한 교과서를 통해 학교교육이 이루어지지만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특수교사들 역시 관련 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 교육받을 기회가 많지 않지만,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특수학교(급) 담당교사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장애학생 안전교육 세미나를 개최하여 장애학생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교육부, 201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애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연수 교육과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방법의 방향을 제시하여, 특수교사들의 안전 관리 및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지식의 질과 수행능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특수교사들의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은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와 응급상황 경험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특수교사들에게 정기적인 연수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되 실기 위주의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장애학생의 부모와 특수교육보조원 뿐 아니라 장애학생을 접하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관련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경숙, 김용욱 (2004). 특수교육보조원의 실태 및 자질과 역할에 대한 인식수준. **특수교육연구**, 11(2), 131-155.

교육부 (2015a).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교육부 (2015b).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

교육부 (2016). **2016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교육부.

김미선, 박미화, 이효숙 (2006). 유아교사의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미래유아교육 학회지**, 13(1), 91-114.

김윤정 (2011). 일반인과 응급의료인의 응급처치에 대한 인식: 코오리엔테이션 모델 적용.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지수 (2003).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보육교사의 요구조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미희 (2011).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서의 영아 안전사고 경험에 따른 교사의 사고관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은혜, 이영선, 이명희 (2010).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특수교육 지원체계에 대한 요구조사.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53(4), 31-58.

4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7권 4호)

- 박재범 (2011). 공립특수학교 교사들의 교직문화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중등 특수교사 중심으로. **특수교육연구**, 18(2), 1-22.
- 박재범, 양정호 (2009). 교직생활에 드러난 특수학교 교직문화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교육교육연구**, 26(1), 369-401.
- 박진성 (2013). 작업·물리치료사의 응급처치 교육실태 및 필요도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경숙 (2005a).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태도, 지식, 실천 및 관련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1(1), 43-53.
- 방경숙 (2005b). 보육교사에 대한 보건소 중심의 영유아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부모자녀건강학회지**, 8(1), 23-35.
- 서연주 (2013). 예비중등체육교사의 응급처치지식수준 및 인식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석희숙 (2006). 보육시설의 응급관리실태와 보육교사의 응급처치지식 및 교육 실태조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손영화, 권요한 (2010). 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실태 및 통합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역할 탐색을 위한 질적 연구. **현상해석학적 교육연구**, 7(2), 33-59.
- 송지호, 조결자, 박은숙, 박인숙, 박호란, 신희선 외 (2012). **원리와 실무중심의 아동간호학**. 서울: 현문사.
- 양선희, 원종순, 백훈정, 전미양, 조현숙, 김미원 외 (2013). **기본간호학**. 서울: 현문사.
- 원혜경 (2003). 보육시설의 안전 환경 평가와 교사의 안전교육 의식에 관한 연구. 진주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선화 (1999). 유아교사의 아동안전 지식, 지각 및 실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지윤 (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가정 내 안전사고 및 어머니의 응급처치.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선미, 조민순 (2010). 보육교사의 응급상황에 따른 처치방법에 대한 실태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55-80.
- 이진영, 한경근 (2007). 서울시 재택·순회교육 대상학생의 지역사회중심 교수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특수교육요구아동연구**, 19, 93-119.
- 이효철, 장용수 (2010).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의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응급구조학회논문지**, 14(1), 19-29.
- 이효철, 장용수, 유명국 (2010).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지식과 수행정도. **한국응급구조학회논문지**, 14(3), 57-69.
-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편역 (2013). **기본응급처치학**. 한미의학.
- 정은진 (2003). 유아특수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유아안전에 관한 인식조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인구 (2009). 초등 특수학급의 안전교육 실태와 교사의 인식.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민순 (2008). 보육교사의 응급상황에 따른 처치방법에 대한 실태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희 (2010). 특수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특수체육교육(학)과 학생들의 전공교과과정 만족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8(2), 137-155.
- 최성규 (2005).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인식비교. **특수교육연구**, 12(1), 119-141.
- 통계청 (2015). 2014 아동안전사고 현황. [cited 2015 October 10]. Available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11
- 하영혜, 방경숙 (2015). 영아전담보육시설 보육교사의 교육요구.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8(1), 19-27.
- 한경자, 김지수, 최미영 (2007). 보육시설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특수보육 요구조사 II: 보육교사의 요구를 중심으로. **아동간호학회지**, 13(2), 128-135.
- 황미영 (2002). 유치원에서의 안전사고와 교사들의 응급처치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진주산업대학교 석사논문.

The Knowledge and Competency of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on first-aid

Hong, Sunwoo · Kang, Kyungsook · Lee, Aeran

Daejeon University · Wonkwang University ·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special education teachers' knowledge content and practice skills for first-aid in the various emergencies and to provide procedures for minimizing the risk of further injuries to students with disabilities after contingent accidents at special education settings.

Three hundred and three special education teachers were invit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All participants were from special schools and special classrooms in general schools. In order to examine special education teachers' treatment method in emergencies at special education settings, Special Education Teachers' first-aid Practice Questionnaire was used. SAS 9.1.3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of items in the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The result revealed that the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knowledge of first-aid depending on interest and experiences of first-aid. However, the difference was not indicated in knowledge of first-aid depending on sex, age, education level, career of teacher. On the other hand, the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a competency of first-aid depending on sex, place of work, career of teacher, interest and experience of number of emergency situation.

In addition to that, special education teachers experienced the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convulsion, vomiting/diarrhea, high fever, losing blood, fracture/dislocation in order, and then being suffocated, getting burned, getting hurt from a fall, being fallen. Th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is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nd providing the first-aid educational program for special education teachers. Furthermore follow-up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the fact-finding on first-aid performed by special education teachers.

Key Words : special education teacher, safety education, emergency situation, first-aid, competency

논문 접수: 2016. 06. 05 심사 시작: 2016. 06. 10 게재 확정: 2016. 09. 03